

일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 행동유형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분석

배상윤, 김승희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Sang-Yun Bae, Seung-Hee Kim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무망감, 우울,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북지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531명의 여대생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무망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외적통제위치가 높을수록,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3.2%이었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무망감, 우울, 통제위치 및 A형 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무망감, 우울,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적 영향, 자아존중감, 무망감, 우울, 통제위치, A형 행동유형, 취업스트레스,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nvergent influence on job seeking stress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 esteem, hopelessness, depression,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among some college women.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531 college women in Jeonbuk area from March 28th to April 29th, 2016. The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e following. The job seeking stress of responden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following groups: a group in which self esteem is lower and groups in which hopelessness, depression,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are higher. Their explanatory power was 43.2%. With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we could confirm relationship among the four factors such as self esteem, hopelessness, depression, locus of control, type A behavior pattern and job seeking stres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efforts, to increase self esteem, and to decrease hopelessness, depression,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are required to reduce the job seeking stress of the college wome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 and policy to decrease the job seeking stress of the college women. In the following study, the analysis about additional factors of influence on job seeking stress will be needed.

Key Words : Convergent influence, RES, BHOP, CES-D, Locus of Control, TABP, Job seeking stress, SEM

Received 5 October 2016, Revised 21 Nov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eung-Hee Kim(Vision Univ. of Jeonju)
Email: shkim@jvisi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여대생은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와 사회인으로서의 기만을 구축하는 청년기 후반에 속하게 된다[1, 2]. 이 시기에는 취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를 수용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여대생은 학업을 진행하며 졸업 후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활스트레스보다는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1].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대생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기 위한 전공분야 학습, 자격증 취득, 공인영어점수 획득, 사회진출 관련 분야의 봉사,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법 습득 등의 노력에서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겪게 된다[3, 4].

취업스트레스에는 성격, 취업불안, 가족환경, 학교환경 및 학업 스트레스가 내포된 것으로 성격스트레스는 취업문제로 성격이 날카롭거나 답답하고 초조감 등으로,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취업걱정으로 음주나 식사장애, 취업 실패 두려움, 자신감 결여 및 취업정보 민감 등으로, 가족환경스트레스는 경제적 문제, 가족부양 및 가족불화 등과 취업필요성으로, 학교환경은 학교수준과 취업 불이익, 취업에 대한 교수지원 등으로, 학업스트레스는 낮은 학점 및 실력부족 등과 취업어려움으로 설명된다[5].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청년실업률, 취업경쟁 및 고용불안의 증가에 의해 가중되어 여대생의 여러 정신적 문제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6].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초기부터 구직을 위한 경력 준비에 몰두하고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어 위기, 긴장감 및 불안 등으로 발생되므로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7]. 이러한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과하지 않는 경우, 동기부여 등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8].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 및 정서 요인은 자아존중감[9, 10], 우울[7, 8], 무망감(hopelessness)[3, 6], 통제위치(locus of control)[11], A형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3, 6] 등이 조사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개념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게 되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3]. 우울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상 중요한 문제로[12]. 인지 및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까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12,

13],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3, 7, 8]. 무망감은 자신의 부정적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의욕 상실 및 활동저하 등을 유발하므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 6, 14]. 통제위치는 행위의 결과가 사건을 발생시킨다고 보거나, 의지나 신념을 벗어난 외부환경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보거나, 운이나 우연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인지하는 특성으로[15], 취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1]. A형 행동유형은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며 성취감이 강하지만 긴장감이 높고 계획성 및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으로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3, 6, 16].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 및 정서 요인들 간의 관련성 면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보호요인이고 우울 및 무망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14, 17], 통제위치와 A형행동유형은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3, 6, 11],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기존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에게서 자아존중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10]. 대학생의 우울은 취업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8]. 여대생의 무망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3, 6].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이 있음을[11], 여대생의 A형행동유형이 취업스트레스에 양의 직접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 6]. 기존연구들은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및 정서적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A형행동유형 및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와 영향력을 규명해보는 융복합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A형행동유형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점수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상호관계와 융복합적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A형행동유형 및 취업스트레스의 상호관계와 요인간의 융복합적 영향력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취업환경 및 사회의 요구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용해나가야 하

는 여대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전북지역에서 3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대학에서 여대생 250명씩 합계 75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654명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7.2%), 부실응답 설문지 123개를 제외한 531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에 연구윤리 및 조사내용을 숙지한 조사원이 대학을 방문하여 여대생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거부에 대한 권리, 자료보호방법 및 설문작성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배포하고 직접 작성토록 하여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2.2 조사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특성 24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우울 20문항, 무망감 20문항, 통제위치 7문항, A형행동유형 10문항 및 취업스트레스 22문항으로 하였다. 척도의 절단점이 없는 자아존중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은 4분위수를 기준으로 Q1, Q2, Q3 및 Q4군으로 구분하여 단변량분석에서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8]의 측정도구를 전병제[19]가 번안한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40점이며, 높은 점수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19이었다.

우울수준의 측정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20]의 한국판 CES-D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며, 높은 점수 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 등[21]의 점수 범위에 따라 CES-D 총점을 16점 미만을 「정상군」, 16점에서 24점까지를 「경도

우울군」, 25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구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하였다. 설문지 내적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0.927이었다.

무망감 수준의 측정은 Beck Hopelessness Scale(BHOP)[22]을 토대로 신민섭 등[23]이 재구성한 무망감 척도로 20문항을 이용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20점까지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무망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eck[24]의 점수범위에 따라 BHOP 총점이 3점 이하인 군을 「정상군」, 4점에서 8점까지를 「경도군」, 9점에서 14점까지를 「중증도군」, 15점 이상을 「중도군」으로 구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하였다. 설문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86이었다.

통제위치는 Levenson[25]의 축소형 통제위치척도(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통제위치 척도 7문항[26]을 사용하였다. 통제위치의 하부 영역은 내적(internal) 통제위치 3문항, 우연(chance) 통제위치 2문항, 외적(external) 통제위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7점에서 28점까지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통제위치의 성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667이었다.

A형행동유형은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TABP)[27]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TABP 10문항[26]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높은 점수 일수록 A형행동유형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내적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0.806이었다.

취업스트레스는 Cornell Medical Index(CMI)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한 취업스트레스 검사 22문항[5]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22점에서 110점까지이며, 높은 점수 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941이었다.

2.3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SPSS(ver 22.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비교는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hierarchical)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구조방정식모형의 입력행렬은 SPSS를 사용하여 AMOS에 의한 Spearman 상관계수행렬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형 구성요소를 잠재변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관측변수로 선택하였다. 변수의 선택은 각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단 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론적인 모형을 지지하면서도 모형적합도에 있어서 적절한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외생잠재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우울과 무망감을, 내생잠재변수는 통제위치, A형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를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각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만을 경로도와 함께 표기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별 취업스트레스

조사대상자 531명의 취업스트레스 점수는 22점에서 110점의 범위에서 평균 35.48±13.68이었다. 일반적 특성별 취업스트레스는 연령이 높은군, 가정의 월수입이 적은군,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나쁜군, 양친의 직장이 없는군, 부와 대화를 안하는군, 모와 대화를 안하는군,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군, 학년이 높은군, 성적이 매우 좋거나 나쁜군, 교수와의 관계가 나쁜군, 학교폭력경험이 있는군,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군, 취미 및 여가생활이 불충분한 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체질량지수, 형제유무, 성장지역, 양친 생존여부, 보호자 양육태도, 가정 분위기, 친구와의 관계, 음주 유무, 흡연 유무, 규칙적 식사, 규칙적 운동, 적절한 수면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Mean scores of job 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Job seeking stress		t/F	p-value*
		Mean	±SD		
Age				15.205	0.000
≤18	150(28.2)	30.59	±11.15		
19-20	230(43.3)	36.57	±14.25		
21≤	151(28.4)	38.67	±13.83		
Household monthly income(10,000 won)				7.532	0.001
≤299	181(34.1)	38.54	±14.57		
300-499	217(40.9)	34.43	±12.77		
500≤	133(25.0)	33.01	±13.19		
Economics status of family				7.464	0.000
Very difficult	26(4.9)	42.46	±15.33		
Difficult	230(43.3)	37.40	±13.33		
Good	261(49.2)	33.51	±13.40		
Very good	14(2.6)	27.43	±11.79		
Parents having job				4.851	0.002
Both having	292(55.0)	34.77	±13.28		
Father only	193(36.3)	34.82	±12.74		
Mother only	39(7.3)	43.08	±17.26		
None	7(1.3)	40.57	±21.26		
Conversations with father				7.821	0.000
Often	243(44.6)	34.18	±14.26		
Occasionally	206(38.4)	34.44	±12.17		
Almost never	53(10.7)	40.77	±13.20		
Not at all	29(6.2)	44.00	±14.96		
Conversations with mother				7.621	0.000
Often	427(80.4)	34.17	±13.26		
Occasionally	80(15.1)	39.91	±12.66		
Almost never	16(3.0)	42.25	±17.56		
Not at all	8(1.5)	47.13	±20.07		
Family life satisfaction				3.273	0.021
Very satisfied	187(35.2)	34.57	±14.63		
Satisfied	291(54.8)	35.14	±12.76		
Dissatisfied	45(8.5)	39.53	±13.86		
Very dissatisfied	8(1.5)	46.00	±16.14		
Grade(yrs)				23.700	0.000
2nd	199(37.5)	30.57	±11.28		
3rd	146(27.5)	37.03	±14.24		
4th	186(35.0)	39.51	±14.02		
School record				4.197	0.006
Very good	33(6.2)	37.67	±17.13		
Good	113(21.3)	34.70	±13.19		
Average	265(49.9)	33.94	±12.49		
bad	120(22.6)	38.91	±15.00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2.791	0.040
Very good	34(6.4)	35.41	±17.55		
Good	477(89.8)	35.12	±13.29		
Medium	16(3.0)	43.56	±12.07		
Bad	4(0.8)	46.00	±19.31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				2.844	0.008
Yes	27(5.1)	44.78	±17.64		
No	504(94.9)	34.98	±13.27		
School life satisfaction				12.366	0.000
Very satisfied	50(9.4)	34.36	±16.30		
Satisfied	381(71.8)	33.90	±12.16		
Dissatisfied	96(18.1)	41.33	±15.46		
Very dissatisfied	4(0.8)	59.00	±15.36		
Hobbies & leisure life				10.185	0.000
Very enough	21(4.0)	35.57	±16.67		
Enough	224(42.2)	32.17	±12.42		
Not enough	242(45.6)	37.24	±13.26		
Very insufficient	44(8.3)	42.59	±16.25		
Subjective Health status				4.347	0.005
Very good	45(8.5)	31.93	±15.35		
Good	355(66.9)	34.74	±12.86		
Bad	125(23.5)	38.38	±14.42		
Very bad	6(1.1)	45.33	±20.14		
Total	531(100.0)	35.48	±13.68		

* : p-value by t-test or ANOVA.

3.2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 행동유형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이 낮은군, 우울이 높은군, 무망감이 높은군, 우연통제위치가 높은군, 외부통제위치가 높은군, A형행동유형이 높은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통제위치에서 내부통제위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Job seeking stress according to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internal locus of control, chance locus of control, external locus of control, type A behavior pattern

Variables (Total score)	N(%)	Job seeking stress	F	p-value*
		Mean±SD		
Self esteem [§]			30.542	0.000
Low(Q1)	119(22.4)	42.77±14.87		
Middle(Q2)	136(25.6)	38.17±14.02		
High(Q3)	156(29.4)	33.28±12.47		
Very high(Q4)	120(22.6)	28.05±8.03		
Depression [¶]			80.649	0.000
Normal group	259(48.8)	29.39±9.04		
Moderate group	142(26.7)	37.40±12.97		
Major group	130(24.5)	45.50±15.54		
Hopelessness			34.422	0.000
Normal group	366(68.9)	32.02±11.74		
Mild group	100(18.8)	40.54±13.31		
Moderate group	57(10.7)	46.14±15.74		
Severe group	8(1.5)	54.25±12.97		
Internal locus of control [§]			2.400	0.067
Low(Q1)	143(26.9)	35.53±13.27		
Middle(Q2)	115(21.7)	36.91±13.47		
High(Q3)	144(27.1)	36.64±14.49		
Very high(Q4)	129(24.3)	32.83±13.14		
Chance locus of control [§]			2.903	0.034
Low(Q1)	189(35.6)	33.51±11.84		
Middle(Q2)	127(23.9)	35.11±13.31		
High(Q3)	137(25.8)	37.05±14.62		
Very high(Q4)	78(14.7)	38.06±16.02		
External locus of control [§]			17.777	0.000
Low(Q1)	169(31.8)	30.11±9.10		
Middle(Q2)	139(26.2)	35.80±12.72		
High(Q3)	78(14.7)	36.62±14.58		
Very high(Q4)	145(27.3)	40.81±16.12		
Type A behavior pattern [§]			17.814	0.000
Low(Q1)	126(23.7)	30.30±10.31		
Middle(Q2)	135(25.4)	33.15±11.70		
High(Q3)	145(27.3)	36.81±13.41		
Very high(Q4)	125(23.5)	41.65±16.18		
Total	531(100.0)	35.48±13.68		

§ : The score was divided into quartile(Q1, Q2, Q3, Q4). Q1, Q2, Q3, Q4 means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and 4th quartile, respectively.

¶ : Depression levels were dichotomize into divided into three groups, normal group(<16 of CES-D score), moderate group(16 ≤ of CES-D score ≤24) and major group(25 ≤ of CES-D score).

|| : Hopelessness leve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ormal & mild hopelessness group(≤8 of BHOP score), moderate & severe hopelessness group(9 ≤ of BHOP score).

* : p-value by ANOVA.

3.3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우울, 무망감, 우연통제위치, 외부통제위치, A형행동유형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1. Job seeking stress	1							
2. Self esteem	-0.408**	1						
3. Depression	0.509**	-0.444**	1					
4. Hopelessness	0.430**	-0.443**	0.431**	1				
5. Internal locus of control	-0.063	0.248**	-0.123**	-0.039*	1			
6. Chance locus of control	0.114**	-0.049	0.077	0.012	.170**	1		
7. External locus of control	0.285**	-0.179**	0.245**	0.147**	0.101*	0.384**	1	
8. Type A behavior pattern	0.311**	-0.281**	0.335**	0.101*	0.105*	0.287**	0.357**	1
M	35.475	28.879	16.853	3.040	5.469	3.117	2.362	25.234
SD	13.676	4.247	10.852	3.960	1.557	1.303	1.653	4.679

* : p<0.05, ** : p<0.01.

3.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의 모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모델 I 은 일반적 특성을 회귀모델에 투입한 결과 학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 학교생활만족도, 취미나 여가생활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취미나 여가생활이 불충분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 모델 II에는 모델 I 에 투입된 변수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28.8%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I에는 모델 II에 투입된 변수에 우울을 투입한 결과 우울이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우울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투입된 변수들로 취업스트레스를 37.4%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IV에는 모델 III에 투입된 변수에 무망감을 투입한 결과 무망감이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망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job seeking stress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Model VI	
	B	t	B	t	B	t	B	t	B	t	B	t
Age	-0.031	-0.096	0.111	0.370	0.077	0.273	0.126	0.453	0.108	0.394	0.070	0.259
Household monthly income(10,000 won)	1.329	0.974	0.684	0.529	0.559	0.461	0.808	0.677	1.108	0.941	1.404	1.200
Economics status of family	1.722	1.343	1.487	1.227	0.958	0.841	1.050	0.938	0.891	0.810	0.807	0.739
Parents having job	3.161	1.512	3.418	1.730	3.441	1.856	3.462	1.901	3.152	1.759	3.282	1.847
Conversations with father	3.087	1.804	2.072	1.278	1.149	0.753	0.712	0.474	0.771	0.519	0.701	0.477
Conversations with mother	4.296	1.542	4.913	1.865	5.342	2.161 *	5.314	2.187*	5.318	2.225*	5.689	2.399*
Family life satisfaction	0.021	0.011	-0.940	-0.510	-2.010	-1.160	-1.787	-1.049	-2.127	-1.263	-2.426	-1.451
Grade(yrs)	3.093	3.748**	2.854	3.657**	2.629	3.588**	2.442	3.385**	2.453	3.448**	2.522	3.577**
School record	2.279	1.696	1.158	0.906	0.161	0.133	-0.047	-0.039	0.286	0.244	0.307	0.265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2.011	0.674	1.439	0.510	2.631	0.993	1.725	0.660	1.644	0.639	1.247	0.488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	6.582	2.625**	5.714	2.409*	3.430	1.530	3.210	1.456	3.253	1.501	3.236	1.507
School life satisfaction	6.116	4.163**	4.550	3.246**	3.437	2.600*	2.915	2.234*	2.810	2.180*	2.869	2.246*
Hobbies & leisure life	2.526	2.190*	1.293	1.175	0.546	0.526	0.214	0.210	0.307	0.305	0.261	0.261
Subjective Health status	1.008	0.779	0.333	0.271	-0.996	-0.858	-0.869	-0.762	-0.799	-0.711	-0.883	-0.793
Self esteem			-1.018	-7.932**	-0.633	-4.915**	-0.472	-3.579**	-0.474	-3.607**	-0.392	-2.950**
Depression					0.439	8.431**	0.381	7.191**	0.342	6.489**	0.307	5.752**
Hopelessness							0.617	4.372**	0.658	4.669**	0.699	4.985**
Internal locus of control									0.618	1.903	0.495	1.527
Chance locus of control									0.107	0.290	-0.091	-0.245
External locus of control									1.077	3.409**	0.872	2.728**
Type A behavior pattern											0.366	3.206**
Constant	20.959		50.239		34.828		29.138		23.698		14.861	
F	9.246		13.860		19.204		19.836		18.533		18.461	
R ²	0.201		0.288		0.374		0.397		0.421		0.432	
R ² change	0.201		0.087		0.087		0.022		0.024		0.011	
Adjusted R ²	0.179		0.267		0.355		0.377		0.398		0.409	

* : p<0.05, ** : p<0.01.

모델 IV에 투입된 변수들로 취업스트레스를 39.7%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V에는 모델 IV에 투입된 변수에 통제위치를 투입한 결과 외부통제위치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통제위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모델 V에 투입된 변수들로 취업스트레스를 42.1%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VI에는 모델 V에 투입된 변수에 A형행동유형을 투입한 결과 A형행동유형이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모델 VI에 투입된 변수들로 취업스트레스를 43.2% 설명할 수 있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 추가되어 각각 8.7%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취업스트레스에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회귀모형을 검토한 결과, DW 지수 값이 1.974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VIF 지수 값이 최소 1.069에서 최대 1.731까지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3개의 외생개념(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과 3개의 내생개념(통제위치, A형행동유형, 취업스트레스)을 이론적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측변수는 RSES로, 우울수준에 대한 관측변수는 CES-D로, 무망감에 대한 관측변수는 BHOP로 하였다. 통제위치에 대한 관측변수는 내부, 우연 및 외부 통제위치로, A형행동유형에 대한 관측변수는 TABP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관측변수는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로 하였다.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chi^2=45.530(df=34)$ 이며, 유의확률은 모델적합도의 판단기준치 0.05이상인 $p=0.089$ 으로 모델은 적합하였고, 원소간 평균차이(RMR)은 0.05이하인 0.024로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기초부합치(GFI)는 0.9이상인 0.986으로서 적합도가 높았고, 조정부합치(AGFI)도 0.9이상인 0.968로 적합도는 양호하였고,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는 0.05보다 낮은 0.025로 나타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증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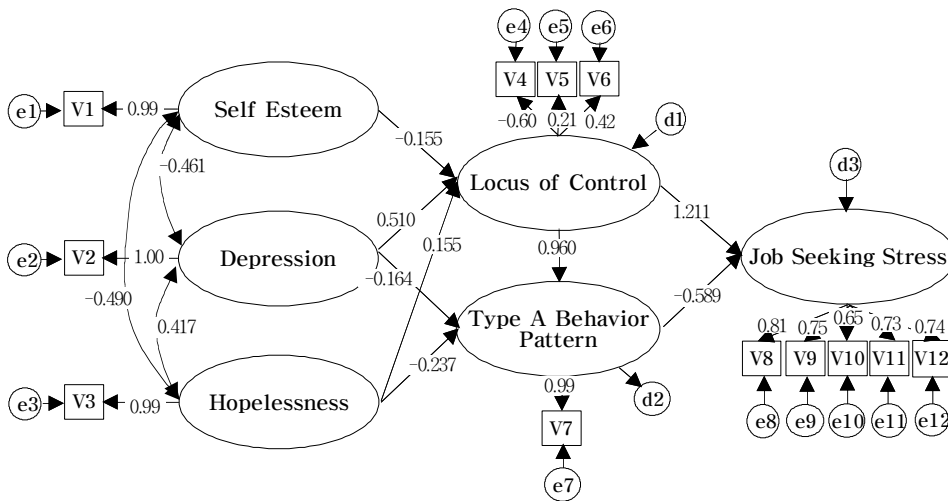
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0.9이상인 0.98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하였고, TLI는 0.9이상인 0.990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비교부합지수(CFI)는 0.9이상인 0.995로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5> Model identification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chi^2 = 45.530(df = 34), p = 0.089$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24
	GFI(Goodness of Fit Index) = 0.986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68
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25
	NFI(Normed Fit Index) = 0.980
	TLI(Tucker-Lewis Index) = 0.990
	CFI(Comparative Fit Index) = 0.995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통제위치에 대한 경로계수가 -0.155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우울은 통제위치에 대한 경로계수가 0.510로 정(+)의 직접효과, A형행동유형에 대한 경로계수가 -0.164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무망감은 통제위치에 대한 경로계수가 0.155로 정(+)의 직접효과,

A형행동유형에 대한 경로계수가 -0.237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통제위치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경로계수가 1.211로 정(+)의 직접효과, A형행동유형에 대한 경로계수가 0.960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A형행동유형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경로계수가 -0.589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통제위치의 경우 자아존중감, 우울 및 무망감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산이 0.472로, 자아존중감, 우울 및 무망감이 통제위치를 47.2% 설명하였다. A형행동유형의 경우는 우울, 무망감 및 통제위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산이 0.631로, 우울, 무망감 및 통제위치가 A형행동유형을 63.1% 설명하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산이 0.745로,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이 취업스트레스를 74.5% 설명하였다. 경로계수는 A형행동유형에 대한 우울의 경로계수가 5%수준으로 유의하였고 그 외 모든 경로계수가 1%수준으로 유의하였다<Table 6>[Fig. 1].



V1	RSES(Rosenberg Self Esteem)	V2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V3	BHOP(Beck Hopelessness Scale)	V4	Internal locus of control
V5	Chance locus of control	V6	External locus of control
V7	TABP(Type A Behavior Pattern)	V8	Personality stress
V9	Home environment stress	V10	Schoolwork stress
V11	School environment stress	V12	Unstable job stress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able 6>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Locus of Control	Type A Behavior Pattern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SMC [¶]
Locus of Control		-0.155**	0.510**	0.155**	0.472
Type A Behavior Pattern	0.960**		-0.164*	-0.237**	0.631
Job Seeking Stress	1.211**	-0.589**			0.745

* : p<0.05 , ** : p<0.01,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4. 고찰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35.48±13.68이었고 일반적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은군, 가정의 월수입이 적은군,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나쁜군, 양친의 직장이 없는군, 부와 대화를 안하는군, 모와 대화를 안하는군,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군, 학년이 높은군, 성적이 매우 좋거나 나쁜군, 교수와의 관계가 나쁜군, 학교폭력경험이 있는군,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군, 취미 및 여가생활이 불충분한 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군, 우울이 높은군, 무망감이 높은군, 우연통제위치가 높은군, 외부통제위치가 높은군, A형행동유형이 높은군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스트레스 점수는 일반대학생 대상 46.98±13.45[8], 간호대학생 대상 46.38±17.67[9]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여대생으로 한정된 결과로 보인다. 여대생의 사회진출, 전문 직업군에서 역할과 균형감 있는 양성 평등사회가 중요해지는 추세로 볼 때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스트레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통제위치는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내부통제위치가 외부통제위치보다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낮다는 보고[25]와 내부통제위치는 취업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11]를 참고 하여 볼 때, 행위의 결과가 사건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내부통제위치의 수준차이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성을 보이는

심리 및 정신적 요소인 자아존중감[9, 10], 우울[7, 8, 28], 무망감[3, 6, 28], 통제위치[11], A형행동유형[3, 6] 등은 여대생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우울, 무망감, 우연통제위치, 외부통제위치, A형행동유형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9, 10]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낮추는[3, 6, 7, 11]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분산분석의 결과와 같이 내부통제위치는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의 모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취미나 여가생활이 불충분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우울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무망감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제위치에서는 외부통제위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A형행동유형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들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43.2%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 추가됨으로 각각 8.7%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련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9, 10]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여대생에서도 확인되었다. 우울과 무망감이 높은군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가 확인 되어 기존 연구[6, 7, 8]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통제위치와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11, 25]이 확인되었는데,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사건을 발생시킨다고 내부적으로 보는 내부통제위치가 높은군이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벗어난 외부의 환경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보는 외부통제위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새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성취감이 강하고 계획성 및 참용성이 부족하고 긴장감이 높으며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는 기존연구[3, 6]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

생에게서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및 A형행동유형과 같은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뿐 만아니라 취업에 대한 외부적지원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우울 및 무망감을 외생잠재변수로, 통제위치, A형행동유형 및 취업스트레스를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적합성은 양호하였으며, 통제위치는 자아존중감으로부터 경로계수가 -0.155, 우울로부터 경로계수가 0.510, 무망감으로부터 경로계수가 0.155로 나타났다. A형행동유형은 우울로부터 경로계수가 -0.164, 무망감으로부터 경로계수가 -0.237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통제위치로부터 경로계수가 1.211, A형행동유형으로부터 경로계수가 -0.589로 나타나, 통제위치는 A형행동유형보다는 취업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의 융복합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함으로써[3] 통제위치를 거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은 정신건강상 중요한 문제로[12, 13]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거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3, 7, 8]이 확인되었다. 무망감은 의욕상실 및 활동저하 등을 유발하여[3, 6, 14]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거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통제위치는 내부행위, 외부환경 및 우연 등이 사건을 발생시킨다고 인지하는 특성으로[15]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형 행동유형은 성취욕이 강하지만 계획성 및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과[3, 6, 11, 16]가 확인되었다.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관리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이 파악되었고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규모 표본에 대한 단면적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전체 여대생으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추후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29, 30, 31] 피로[32] 및 취업준비행동[33]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달동안 임의로 선정된 전북지역 소재 3개 대학에서 무작위 추출된 여대생 531명에 대한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연령이 높은군, 가정의 월수입이 적은군,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나쁜군, 양친의 직장이 없는군, 부와 대화를 안하는군, 모와 대화를 안하는군,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군, 학년이 높은군, 성적이 매우 좋거나 나쁜군, 교수와의 관계가 나쁜군, 학교폭력경험이 있는군,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군, 취미 및 여가생활이 불충분한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군, 자아존중감이 낮은군, 우울이 높은군, 무망감이 높은군, 유연통제위치가 높은군, 외부통제위치가 높은군, A형행동유형이 높은군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우울, 무망감, 유연통제위치, 외부통제위치, A형행동유형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취미나 여가생활이 불충분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을수록, 외부통제위치가 높을수록,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3.2%로 나타났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과 취업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위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우울, 무망감, 통제위치 및 A형행동유형을 관리하는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G. P. Ko, M. Y. Sim,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6, pp. 379-3913, 2015.
- [2] E. Y. Cho, J. A. Kim, J. Y. Kim, H. J. Kim, E. S. Ra, H. Y.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JCCT*, Vol. 2, No. 1, pp.35-43, 2016.
- [3] S. H. Kim, S. Y. Bae,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367-375, 2015.
- [4] E. K. Byun, S. J. Yoon, K. H. Kim, "The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146-153, 2014.
- [5] H. J. Kim, Y. R.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Korean J of Dance Education*, Vol. 8, No 2, pp 57-84, 2008.
- [6] S. Y. Bae, S. H. Kim,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269-278, 2016.
- [7] E. K. Byun, S. H. Park,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323-330, 2014.
- [8] H. O. Jeon,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adult attachment and self-assertiveness, on depress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7, pp.312-323, 2014.
- [9] B. S. Park, H. N. Cho, B. J.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109-1117, 2015.
- [10] S. H. Kim, S. H.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 Adult Nurs*, Vol. 27 No. 1, pp. 63-72, 2015.
- [11] S. W. Yun, K. S.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ocus of control on stress towards employment",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2 pp. 606-614, 2012.
- [12] S. J. Yu, M. R. Song, E. M.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0 No. 1, pp. 71-80, 2014.
- [13] Y. K. Choi, J. H. Park, Evalu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self esteem, BMI, blood types, blood pressure of university students.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Vol. 17, No. 3, pp. 91-102, 2013.
- [14] S. Y. Bae, Y. C. Cho,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6, pp. 3685-3695, 2014.
- [15] J. Rotter,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entice-Hall, Inc. 1954.
- [16] S. H. Kim, S. Y. Bae, "Factors related to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33-443, 2014.
- [17] S. H. Choi, H. Y. Lee,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The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08-816, 2013.
- [1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p. 46-68, 1965.
- [19]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Vol. 11, pp. 107-129. 1974.
- [20] M. M. Weissman, B. Z. Locke,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mptom rating scale(CES-D) with

- standardized depression rat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 J Epidemiol*, Vol. 102, pp. 430-431, 1975.
- [21] M. J. Cho, K. H. Kim,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2, No. 3, pp. 381-399, 1993.
- [22] A. T. Beck, A. Weissman, D. Lester, L. Trexler,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 Consult Clin Psychol*, Vol. 42, No. 6, pp. 861-865, 1974.
- [23] M. S. Shin, K. B. Park, K. J. Oh, Z. S. Kim,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1-19, 1990.
- [24] A. T. Beck, R. A. Steer, “Manual for the beck hopelessness sca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 1988.
- [25] H. Levenson,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s”, *J Cons Clin Psychol*, Vol. 41, No. 3, pp. 397-404, 1973.
- [26] S. J. Chang,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and the development work 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eoul. 2001.
- [27] S. G. Haynes, S. Levine, N. Scotch, M. Feinleib, W. Kannel,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factors t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framingham study”, *Am J Epidemiol*, Vol. 107, No. 5, pp. 362-383, 1978.
- [28] S. H. Kim, S. Y. Bae,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childbirth perception among some college women”,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399-406, 2016.
- [29] H. O. Kim, Y. J. Koo, E. N. Park, “The influence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perceived stress, stress coping, perfectionism, and self esteem”,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57-266, 2015.
- [30] J. W. Lee, K. H.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 [31]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 [32] S. Y. Bae, S. H. Kim,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uman nature factors, mental health factors and fatigue on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3, pp. 221-229, 2015.
- [33] K. Y. Ji, J. Y. Han,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33-41, 2016.

배 상 윤(Bae, Sang Yun)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교육
- E-Mail : sangyb@jvision.ac.kr

김 승 희(Kim, Seung Hee)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건강보험
- E-Mail : shkim@jvision.ac.kr